

섬 티아고 순례 기행 2

포토로그

2024/05/09 16:07

<http://blog.naver.com/0102chang/223441421298>



하룻 밤을 민박집에서 묵고 난 아침은 갯비린내 하나 없이 청량감으로 그득하다.



전 날 답사했던 5번 성소 예배당 아래 노돏길에서 둘째 날 순례길을 시작한다.



눈앞에 펼쳐진 대기점도와 소기점도를 잇는 노돏길.

노돏길은 섬 주민들이 섬과 섬 사이의 갯벌에 돌을 쌓아 만든 징검다리에
시멘트를 덧씌워 자동차와 사람이 오갈 수 있게 만들었지만,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하루에 두 번씩 노돏길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여,

즐거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방랑객들에게만 바다가 갈리는
기적 같은 길을 열어주는 섬길이다.



노들길을 걸어 소기점으로 넘어오면 선착장 방향으로 하염없이 걸을 듯하지만...
좌편으로는 뽕밭이 펼쳐지고,
길 한쪽으로는 거울 같은 맑은 저수지 위에 그림처럼 떠있는 예배당("감사의 집")을 발견하게 된다.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로 지어진 달팽이 같은 형상의 성소이지만...
아쉽게도 방랑객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림의 떡(?) 같은 예배당이다.



손바닥만 한 섬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소기점도 순례길은 전봇대 찾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불상사는 없을 듯하다.

"길은 전봇대이고, 전봇대는 길이었다".

청아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섬길을 걷는 필부의 기분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기까지 하다.



소기점도에는 두 개의 성소 예배당이 있는데...

앞서 보았던 "그림의 떡" 같은 아름다운 예배 성소와

범바우 산을 다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산행을 하고 내려와야 비로소 보게 되는 일곱 번째 "인연의 집"에 다다른다.

흰색으로 도배된 건물에 파란색 문이 돋보이는 기도 성소다.



소기점도 7번 성소에서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순례길에 만난 갯바닥 풍광.

청정 갯바닥엔 검은 황금(김)이 자라나는 장대가 수없이 깃발처럼 광활하게 꽂혀있고,

그 앞으로는 해도 물길을 따라 통통배가 어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소기점도 게스트 하우스와 필부



게스트 하우스에서 바라다보는 청량한 아침 풍경과 나그네의 봇짐



순례길에서 만난 두 번째 노dut길

소기점도와 소악도 가는 중간 지점 노dut길에 자리 잡은 "기쁨의 집"

이슬람 사원을 닮은 황금빛 돔 장식이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만조 때는 노dut길이 사라지고, 황금돔 예배 성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대가 될 듯싶다.



8번 성소 예배소를 지나 소악도 앞산과 개바우 산으로 가는 순례길 진입로



폐자재를 활용한 예배 성소 "소원의 집"

예배 성소 밖으로는 조수 간만의 차를 즐길 수 있는 풍광과

성소를 빠져나온 길 옆으로는 민물 새우가 유명한 대소쿠리만 한 둑뽕과

방랑객을 위한 그늘 쉼터와 소망교회로 가는 길이 맞닿아 있다.



"소원의 집"과 둠벙을 지나 소악도 안쪽 마을로 들어서면...

순례길 마스코트 같은 빨간 지붕을 이고 있는 "소망교회"가 눈에 들어온다.

소시적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떠 올려지는

아담한 소망교회 앞에는 타종할 수 있는 종탑이 아직도 건재하다.

교회 앞에는 섬마을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념비와

21개 섬을 나룻배를 타고 신앙을 전파했던 보따리와 고무신이 기념비 위에 오롯이 올려져 있다.



소망교회를 답사하고... 세 번째 노두길을 지나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예배 성소 "칭찬의 집"
 소악도와 진심을 연결하는 노릇길을 지나오면 순례길 삼거리에 자리 잡은 예배당이다.
 바탕이 하얀 벽돌집에 뾰족한 삼각 지붕은 동화에 나옴직한 감쪽한 모양새의 성소이고,
 지금까지 보아 온 꼬마 예배당 중에서 가장 짜임새와 규모(?)가 있는 품격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앞, 뒤로 매트인 아치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진 11번 성소 "사랑의 집"

하얀 건물 벽에 조개껍질이 부조되어 있고 머리 위쪽엔 쪽창 두 개가 양증맞게 균형을 맞춘 가운데

"조는 하트(sleeping heart)"가 올려져 있다. 매트인 성소 뒤편에는 석양에 지는 노을과

풍광을 관조할 수 있는 명당자리 포토존이다.



람사르 습지인 섬길에서 만나는 사물 하나하나 동공에 각인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시간이란 공간 안에 만들어진 최고조의 자연 풍광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섬사람들의 삶과

갯내음 진하게 우려난 지금의 풍광이 카메라 앵글에 조각 바람처럼 선선히 모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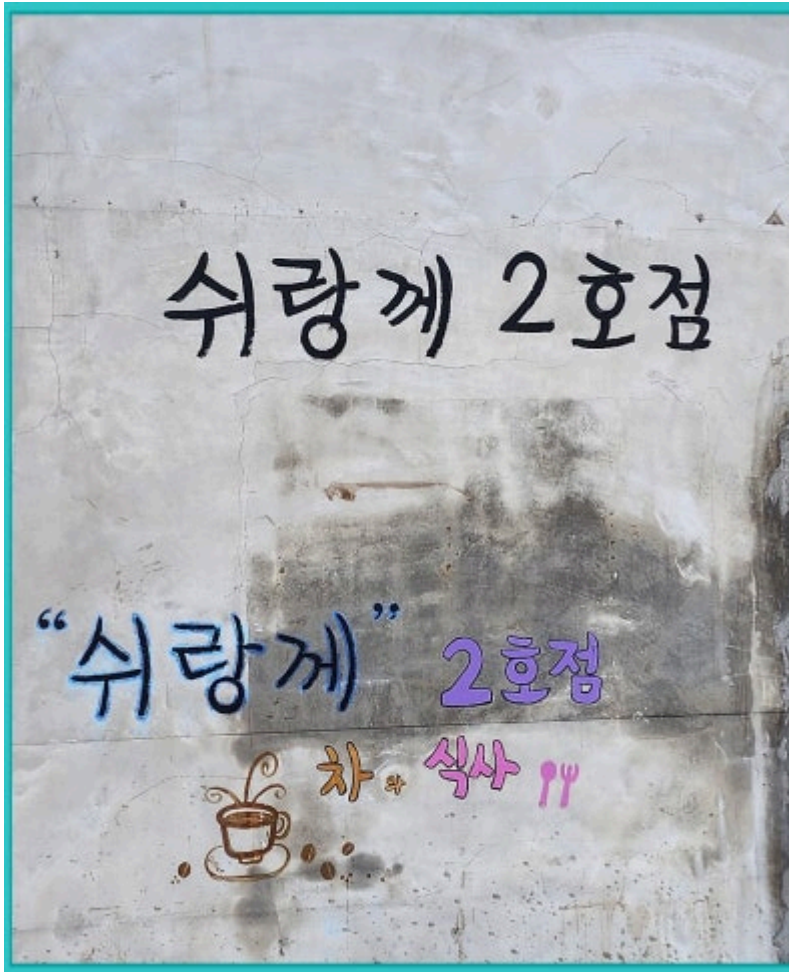
"사랑의 집"을 뒤로하고 소룻길 대숲을 따라 나오면 무인도에 달랑 올라선 예배당 "지혜의 집"이 보인다.
 노뚝길 없이 마주 보이는 게 탄성이다.
 경계가 없는 모래펄을 걸어들어가면 순례길 최종지에
 건축미가 돋보이는 붉은 벽돌의 침탑 예배 성소와 방랑객들을 위한
 소품 같은 타종 탑이 필부를 맞이한다.



"지혜의 집 타종 탑과 그 내부에 방문객들의 순례 방명록



순례길 마지막 성 소 12번 "지혜의 집"을 나와 진섬 고틀머리에 자리 잡은 소악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소악도 선착장에는 배를 기다리는 방문객들을 위한 매표소와 같은 쉼터가 없다.

다만... 선착장으로 가는 길목에 몇몇 카페 같은 밥집과 "쉬랑계 2호점" 이 있어서 배를 기다리는 중에 식사와 음료수를 즐기며 입항하는 배를 기다릴 수 있다.

이곳은 김양식업자 김양운씨가 운영하는 기부 형태의 식사와 카페를 겸하고 있는 쉬랑계이다.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에 나왔을 만큼 유명세를 치르고 있지만...

오후 2시 배를 기다리며 방문했을 때는 인근 노무자들 식사와

방문객들로 인해 부산함과 벽적담이 어수선했다.

차려낸 밥상도 그다지 성에 차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식대 대신에 학생들을 위한 기부금을 받는다 하여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드디어 1박2일의 여정을 마치고...
물로 돌아갈 배가 소악도 선착장으로 입항하고 있다.



기대 반 호기심으로 걸어 보았던 12개의 성소 예배당길

일상에 치이고 숨 가뻐던 시간들을...

발길 가는 대로 구부렁 섬길을 답사하며 숨은 보물 찾기하듯이 찾아낸 성소 예배당들이

보일 때마다 맛보았던 기쁨의 희열은 내 유년의 때묻지 않은 심성을

재발견하는 설렘의 연속이었다.



하루를 묵어가며...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지평선이 수평선으로 바뀌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섬길
불편한 자연이 만들어 낸 람사르 습지의 섬길을 인내하며 돌아보았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언제나처럼 물길 위에 쏟아지는 햇살에 반짝이는 물길이
떠나는 방랑객들을 뜨겁게 배웅했다.

Epilogue

"스쳐 지나간 사물들, 인연도 상황도 관심을 갖는 여부에 따라 각각의 의미가
부여되고 새로운 경험과 사색으로, 스스로를 풍성하게 하고 소확행의 일상을 열게 한다.

무엇인가에 마음이 간다는 것은

그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자극하는
호기심과 추구하는 가치와 선행적 경험과 지득한 사유의 그것에 기인한다."

- 편글 -

2024. 05. 09 물 한 동

섬 티아고 순례 기행 1

포토로그

2024/05/09 15:56

<http://blog.naver.com/0102chang/223441407711>

갑진년 들어서 모처럼의 원정 트래킹에 필부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목포 하고도 서해 신안 앞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뚝방길로
섬 4개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천사 대교가 개통되고 나서는 왠지 서해 다도해가
내 집 안방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원정 트래킹에 들뜬 마음뿐이 아닐진대
조막만 한 섬과 섬을 이어주는 섬길에 대한 호기심이 짙어진다.

섬과 섬을 이어주는 뚝방길. 일명 노돛길은 하루 두 번의 만조와 간조에 따라
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는 섬 티아고 순례길 섬 특유의 길이다.
수평선일 때는 발길을 묶고,
지평선 일 때만 방랑객의 발길을 허락하는
마법 같은 순례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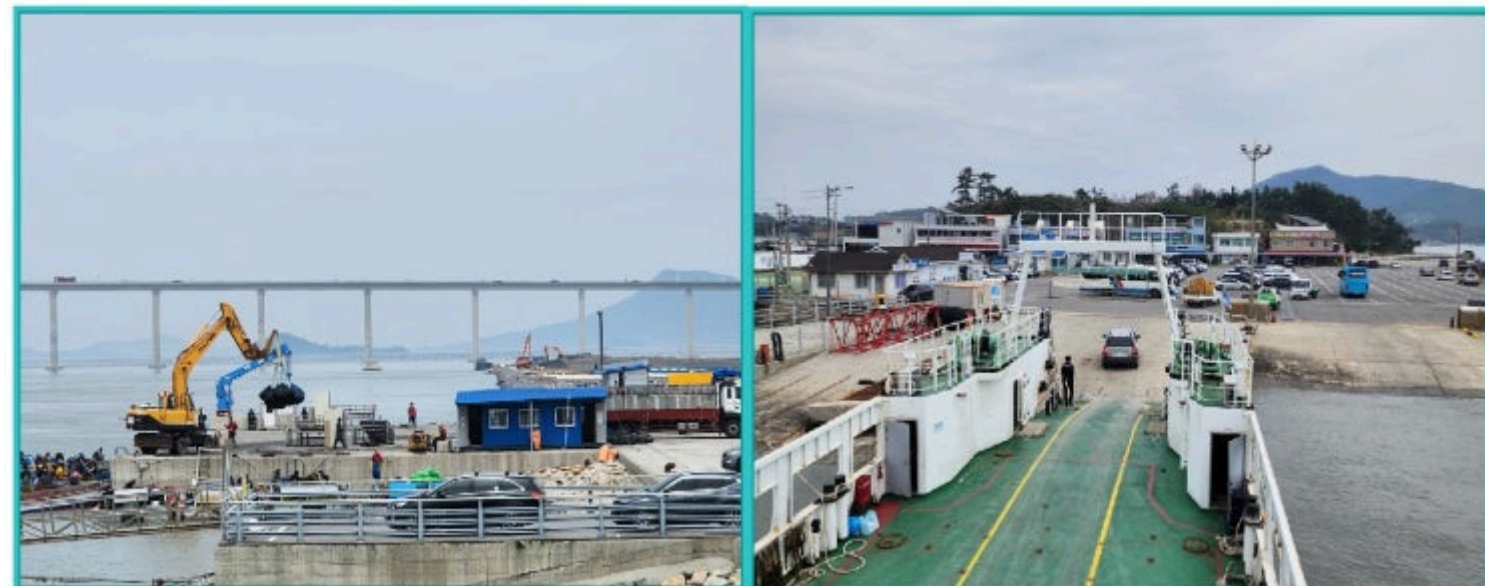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퍼온 사진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에 손바닥만 한 섬 (대기점도 — 소기점도 — 소악도 — 진섬 - 탄 섬)

4개를 이어놓은

노릇길을 심심파적 걸어 걸어서 12개의 성소를 돌아보는 섬 트래킹 12km의 길이다.



목포역에서 130번 버스를 타고 압해도 송공항까지는 대략 50분 정도 소요된다.

송공항은 여느 선착장과는 달리 널찍한 부지 내에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주차장도 여유만만하다.

필부는 12:50분 금일페리2호에 승선하여 선실 내에서 배낭을 배게 삼아
놓친 새벽잠을 보충한다.

해운사 배 시간표



수평선을 자벌레가 기어가듯 어느덧 섬 트래킹의 첫발을 내디딜 대기점도가 눈에 들어온다.
선착장과 섬으로 들어가는 구불 길과 그리스 산토리니 풍의 둥글고 푸른 지붕의
성소가 필부를 반긴다.
섬으로 들어가는 길 좌우로 옥빛 물결이 한쪽은 풀 먹여 다림질한 듯 조용하고,
또 다른 한쪽은 양식장에 먹이 주는 시간대에 물고기 떼가 몸부림치는 듯 물결이 일고,
야트막한 언덕배기에는
마파람에 산벚이 흩날리고 있었다.



12성소 1번 "건강의 집" 내부에서...



남쪽 바다가 시원스럽게 펼쳐진 섬 가장 자리로
구부렁하게 잘 닦여진 마을 길이 정겹다.



선착장에서 발길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마을 입구.

진입구 아스콘 도로에는 "순례자의 섬" 이란 문구가 섬길을 찾는 방랑객들을 반기고
포도를 따라 늘어선 전신주 꼬트머리에는 20호가 채 안 되는 조막만 한 마을이
거센 갯바람에 날아갈까 꼬깃꼬깃 엉킨 채로 숨어있었다.



해안가 한쪽 전망 좋은 정자와 함께 자리 잡은 "생각하는 집"

북촌마을 민박집촌 앞에 파란 모자를 눌러쓴 꼬마 예배당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필부가 하룻 밤 묵어갔던 대기점도 대기점 민박집과 마을 정경



갯바위 따개비처럼 영킨 섬마을을 뒤로하고 돌아 보는 해안 도로와 섬마을...
그리고 파란 모자를 쓴 꼬마 예배당과
섬마을 빨간 지붕과 사춘 격인 정자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먼 나라 순례길을 본떠서 섬 티아고라 이름 붙여진 섬 순례길에는 크고 작은 둠벙과
모내기 전인 논바닥엔 희귀식물인 "매화마름"이 군데군데 피어났다



기다란 전봇대와 같이 논길을 걷다 보면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그리움의 집" 이 자리 잡고 있다.
 숲속 꼬마 방갈로 같은 모습의 예배당은
 성덕 신중에 들어있는 비천상이 부조되어 있는 성소다.



순례길 성소 4번과 성소 5번으로 가기 전 갈림길 이정표

기둥 판때기에 주렁주렁 방향표를 매단 모습도 이번 섬길에서 볼 수 있는 정겨움이다.



소기점도에서 소악도로 들어가는 노들길 입구에 자리 잡은 다섯 번째 예배당 "행복의 집"
 출항하는 거함이 돛을 한껏 올리고 망망대해를 진군하는 모습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담하기 그지없는, 소박하기만 한 예배당이다



소기점 "행복의 집"에서 좌편으로 난 뚝방길을 걷다 보면 무궁한 갯벌을 마주 보게 된다.

무수한 생명들이 숨 쉬는 빨판에는 칠게들이 굼뜰 동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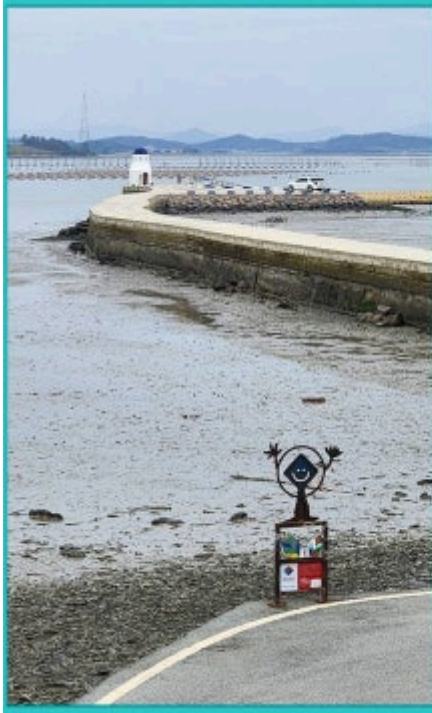
이리저리 움직이며 먹이 작업이 한창이다.



앞서 갈림길에서 먼저 왔어야 할 4번 성소 "생명평화의 집"
남촌 마을 할아버지가 희사한 땅에 예배당이 들어섰다.
작가는 성소 창문을 통해 할머니 무덤이 보이도록 쪽창을 냈고,
계단식 성소 한켠에는 할아버지가 키우던 염소 상이 자리 잡고 있다.



굵실거리는 섬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갯벌 안쪽에 섬사람들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던
자그마한
독살이 둠벙처럼 자리 잡고 있다.



대기점도 해안선을 따라 1번 성소부터 5번 성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5km 내외의 짧은 순례길이었지만...

필부에게는 모처럼 만에 갖는 치유의 길이었고,
이 작은 다도해에 인형 같은 예배당 성소를 짓고
길을 찾는 방랑자들에게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해준 사람들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소중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민박집의 성찬...

주인장 아주머니의 맛깔난 음식들을 곡차 한 잔과 더불어 새벽부터 설친 피로를
단박에 풀어 버린다.